

투데이칼럼

“고창 ‘인구 5만 지키기’ 나부터 함께 시작하자”

7월 11일은 ‘인구의 날’이다. UN이 세계 인구가 50억명을 돌파한 1987년 7월11일을 ‘세계 인구의 날’로 제정한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는 저출생과 고령화 시대 인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 법정기념일로 정해졌다. 세계 인구는 계속 늘어나 82억명을 돌파한 반면, 대한민국은 저출생, 고령화가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지방소멸을 우려하고 있다. 2025년 6월 기준 고창군의 인구는 5만 631명으로, ‘5만’ 선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고창군은 ‘인구 5만 지키기 추진단’을 구성하고, 관내 기관·단체와 공직자가 참여하는 범군민 운동을 이끌며 일부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고창군 출생아·생활인구·청년동업인 늘어 고창군에서 희망찬 아기 울음 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4년 1년 동안 고창군 전체 출생아는 169명으로, 2023년 137명에서 크게 늘었다. 삼탁읍 고창군수는 선거공약으로 2023년부터 산후 조리비를 기존 50만원에서 200



유창형
고창군 행정지원과장

만원으로 대폭 높였다. 출산장려금 역시 기존 첫째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둘째 300~500만원, 셋째 75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이상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고창군을 다녀간 생활인구도 주민등록인구의 8배에 육박하고 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4년 10월 기준 고창군의 생활인구는 40만9641명(주민등록인구 5만 1000명)에 달하고 있다. 생활인구는 기존 주민등록인구 뿐만 아니라 체류인구(특정 지역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방문자)와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는 세계유산도시 고창군의 다양한 매력을 즐기는 관광객을 비롯해, 스포츠 활성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이 지역에 활력을 더하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평가다. #정부의 인구정책과 시너지 효과 불러 넣어야 인구 감소는 단지 통계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존립의 문제’다. 고창군이 추진하는 △터미널도시 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 △삼성전자 스마트허브 유치 △모나오피리조트*(2028년 예정)와 명사십리 해양관광단지 조성 등 핵심 전략 사업들은 정주 여건 개선, 일자리 확충, 체류 인구 확대라는 범국가적 흐름 속에서 맞닿아 있다. 국가 단위 컨트롤 타워 설치와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정책이 고창군의 지자체

차원 노력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먼저 준비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특히 출산 인센티브, 청년·신혼부부 주택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등에서 정책 간 연계와 지원이 긴밀히 이루어진다면, 고창군이 지향하는 인구 5만 유지 목표는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모두의 참여로 만드는 ‘5만 고창’ 지방소멸 위기 대응의 첫 걸음 7월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전국 각 지자체도 저마다의 ‘인구 전략’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군민 개개인의 참여와 실천 없이, 정책은 공허할 뿐이다. 고창군 인구 5만은 나의 일이다. 나 먼저 인구문제에 관심을 갖고 ‘고창앰 주소갓기 운동’부터 시작해보자. 작은 참여가 큰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가 고창의 존재와 미래를 지키는 힘이 된다. 이러한 노력과 국가의 지원과 고창군의 현장 정책이 함께 어우러진다면, 우리는 분명 고창군의 인구 5만 시대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나부터, 우리부터, 함께 지키자.

사설

독립운동가 완주 출신 장윤집

독립운동가 장윤집(張允集)은 1879년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출생이다. 7세 때 서당에서 수학했으나 을사조약이 있자 5년 간 의학공부를 한 후 31세부터 약업에 종사했다. 한일합병 때 팔도강산 유랑길을 떠났다. 다시 전라도에 길을 밟은 것은 1918년 10월이다. 그 때 백연해(白蓮海)와 송태봉(宋太峯) 두 동지를 만나게 되었다. 세 사람은 전주 건지산(乾止山) 아래 능소(陵所)에 참배하며 조국광복의 맹서를 했다. 같은 해 이의한(李義漢) 박남규(朴南奎) 이용화(李龍華) 선상산(宣相山) 정해주(鄭海周) 등 5인도 만났다. 이들은 조선독립광복선서식을 거행했다. 장윤집 선생은 승려로 가정하고 1923년 완산철봉에 청학사(靑鶴寺)를 짓고 연락소를 두었다. 익산 황등(黃登)과 삼례에

불교포교소라는 간판을 내걸고 독립운동을 계속했다. 청학사에서 전주경찰서에 체포돼 갖은 악형(惡刑)을 당했다. 선생은 완주군 소양면 월음리 미륵사 태조왕사 사지(寺地)에서 조직운동을 계속했다. 1937년 전주 덕진 건지산하(乾止山下)에 건지사(乾止寺)를 건립하고 조선독립지하운동본부로 결정했다. 육구군 해종전(海宗殿)에 모신 고종황제의 존령(尊靈)을 건지산(乾止山)에 봉안(奉安)하고 조석상식(朝夕上食)과 삭망제전(朔望祭典)을 드리게 했다. 선생은 1945년 8월 18일 세상을 떠났다. 당초 건지사(乾止寺) 고종황제의 위패를 진안 마이산 회덕전(懷德殿)에 모시고 선생을 위시한 동지들도 함께 모실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적(事蹟)마저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져가는 상황이다.

고령은 전자 사고 급증

고령 운전자들이 모는 자동차가 건물이나 인도 등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조건부 면허 등 다양한 대책의 빠른 도입이 시급하다. 지난 2일, 80대가 몰던 SUV 차량이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휴게소 식당을 덮쳐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지난 3일 서울 방학동에서는 60대 기사가 몰던 택시가 인도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신체 능력이 떨어지고 반응 속도가 늦어져 그만큼 사고 위험도 크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비고령자와 비교해 돌발 상황에서의 반응이 최대 1.08초나 오래 걸린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4만 2천여 건으로, 3년 만에 33%나 급증했다.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이 숨진 이후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착각했을 때 급가속을 막아주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사고 1년이 넘게 지난 다음 달에야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가 있지만 반납률이 2% 수준에 불과하다. 나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만 운전할 수 있게 제한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는 논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한정면허 제도도 반드시 필요하다. 야간 운전 금지 또는 고속도로와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는 운행을 못 하도록 해야 한다. 고령자 이동권과 시민 안전을 모두 지킬 수 있는 대안들을 서둘러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대만군 실사격 훈련장 찾은 라이칭더 총통



라이칭더(뒷줄 가운데) 대만 총통이 10일(현지 시간) 대만 신주현에서 열린 대만군의 실사격 훈련장을 방문해 군인들과 함께 기념 촬영하고 있다. 대만은 9일부터 열흘 일정으로 연례 ‘한광-41호’ 군사 훈련을 시작했으며 이번 훈련에서는 중국의 2027년 무력 침공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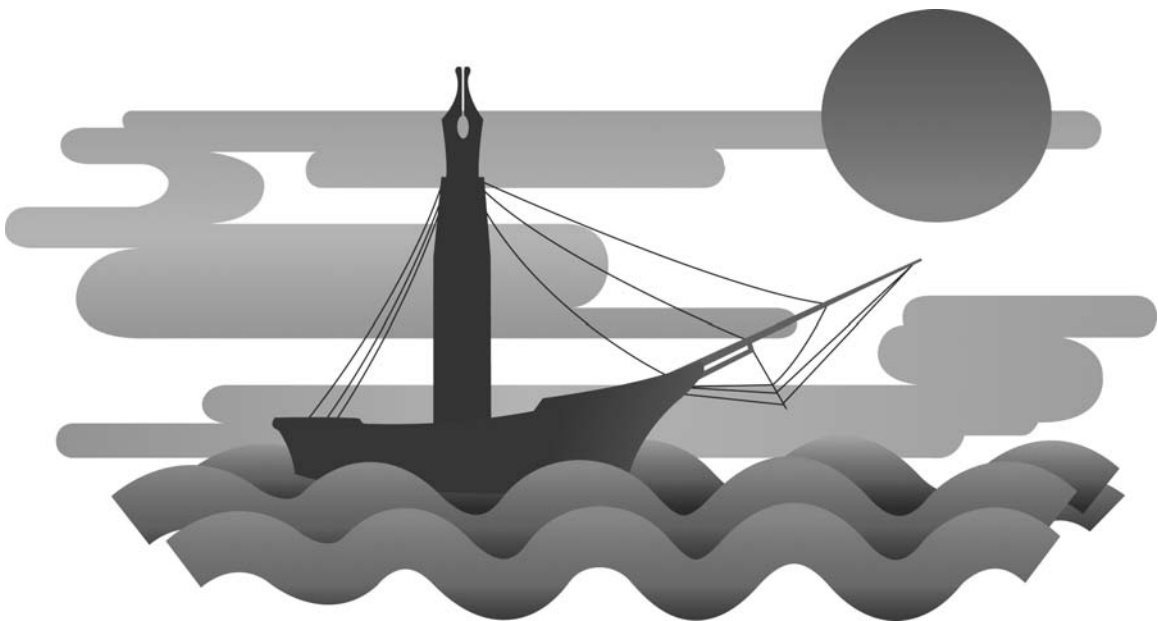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잠 청하는 키이우 주민들



10일(현지 시간) 러시아의 공습을 받은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주민들이 지하철역 승강장으로 대피해 잠자고 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